

악취 잡고 온실가스 줄이고 운영비 절감 광주시 하수시설 개선 '1석 3조' 효과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2018년부터 에너지자립화사업

바이오 가스 활용 연 34억 절감

농축조 악취배출농도 94% 줄여

광주시가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소는 물론 처리장 내 악취까지 잡아내는 등 '1석 3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서구 치평동 소재 제1하수처리장에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완료하고, 일일 1만7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3만2000㎥로 증산한 뒤 하수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연료로 사용해 연간 37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광산구 본덕동 소재 제2하수처리장도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94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일일 3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1만60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 절감액은 34억원 수준이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찌꺼기를 분해하고 감광하는 소화처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수 찌꺼기를 건조하는 사업이다. 건조시 기존 도시가스 연료 대신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 등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1하수처리장에 100억원을 투입, 악취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물인 침사지와 농축조 등을 밀폐 포집하고, 악취제거 처리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개선사업 완료 후 농축조 악취배출농도를 94%나 저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제2하수처리장에도 2019년부터 48억원을 투입해 침사지 농축조 등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시설을 밀폐하는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우현 시 하수관리과장은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악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응

건설현장 32곳 중점관리 대상 지정

기상특보 24시간 비상 대응반 운영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폭염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집중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폭염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풍수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건설현장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일제점검에서 발주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수방자재 확보 ▲토사유실, 붕괴 등 위험요소 ▲취약시설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도심지 내 대형건설현장 8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 폭염에 따른 근로자 휴게 쉼터 설치, 무더위 휴식시간제 실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 예상 시 상황판단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현장별 긴급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비상시 신속대처를 위해 24시간 현장대응, 수방자재를 즉시 가동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수·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강풍예보 시 무리한 작업금지, 기상상태 호전 시까지 작업 연기 확인 등에도 나서 태풍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정석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아픔을 거울삼아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청년드림수당 2기 참여자

560명 2일부터 9일까지 모집

매월 50만원씩 5개월간 지원

광주시는 1일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1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2기 참여자 560명을 2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은 청년층의 구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 560명씩 총 1120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는 560명을 선정해 최대 2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했다.

모집대상은 광주시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 1대1 컨설팅 및 취업 이후 회사 적응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이해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매와 시험 응시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은 물론 구직을 위한 식비, 교통비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드림수당 모집 일정과 자격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발송한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여와 청년드림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무역 그린월 포토존서 찰칵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상무역 대합실에 설치한 포토존 겸 식물 공기정화시스템인 '그린월(Green wall)'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수정역, 상무역, 금남로4가역 등에 있는

'그린마케팅 포토존'에서 날짜가 보이도록 인증 사진을 찍으면, 당일에 한해 1913송정역시장, 세정아울렛, NC웨이브 등에 있는 상생업체에서 할인 또는 무료상품 제공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일 폭염...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광주시 외출 자제 등 당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코로나 19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감기온이 더욱 높아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현재 24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2명이 신고됐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온열 질환자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발생 시간은 오후 2시-5시 사이가 37.2%로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실외(85.8%)가 대부분이었다. 건설현장과 제조 설비현장 등이 44.3%였으며, 논·밭 13.1%, 길가 10.8% 등의 순이었다. 환자 특성은 남자가 7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는 40-50대 44.0% 등이었다. 여름철 오후 2-5시 사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이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송해자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폭염 피해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영유아,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도 폭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가능

광주시 조례 개정...대상도 확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했으며,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참여도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23일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지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다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